

원자력 르네상스를 대비하는 자리가 되길

조 남 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 공동 대회장



존경하는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내외 원자력계 귀빈 여러분.

오늘 제2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대회 공동 주최 기관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세계 원자력계의 지도자와 석학을 비롯하여 국내외 원자력계 전문가 여러분이 많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연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멀리 외국에서 방문하신 내빈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1986년 4월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한국원자력산업회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그동안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견교환의 마당이 되어왔으며 벌써 제2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연차대회가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하기까지는 국내는 물론 외국 원자력계 여러분의 물질양면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은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암 치료, 종자 개량, 식품 보존, 비파괴검사 등 무한한 활용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원자력 응용 기술은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술로서 그 활용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지속적인 고유가 사태로 인한 에너지 안보 확보와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 원자력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기회와 함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큼 과거 어느 때보



제2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 사선 전경

다도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움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물론 원자력 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운영을 위한 부지 확보와 전력 산업 경쟁력 확대에 따른 경쟁력 향상 등도 우리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원자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세계 원자력계의 공동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23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원자력 르네상스를 대비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아울러 참가자들 간에 상호 교류 증진과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외 참석자 여러분께는,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의 역동적인 발전상과 유구한 문화 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일경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차대회 참석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과 국내외 원자력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 드리며 이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